회원사 탐방

첨단 지능형 자동차 안전시스템용 카메라 렌즈 시장 선도

㈜위오(WEEO CO., LTD.)

㈜위오(대표·서동수, www.weeo.co.kr)는 1998년 비디오 도어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 전문업체인 M.F. 전광㈜의 자회사로, 2003년 1월 9일 납입자본금 5천만원과 첨단 지능형 자동차 안전시스템용 카메라 렌즈 개발 및 해외 판매 법인으로 출발했다. 2명으로 출발한 직원이 현재 30여명에 이르며 매출 30억원의 내실있는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한 이 회사는 2010년 경인년(庚寅年)을 제2 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2015년까지 첨단 자동차 부품 선도업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위오의 서동수 대표이사

▶ 생산현장(Auto-Centering)

㈜위오 서동수 대표는 1994년 비디오 도어폰용 카메라 렌즈 개인사업을 시작으로 1998년 M.F전광㈜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2005년에는 비디오 도어폰용 카메라 렌즈의 국내 판매에 국한되었던 M.F전광㈜을 자회사인 ㈜위오의 신규 사업 방향에 맞추어, 양 법인을 ㈜위오로 통합했다. 이후 첨단 지능형 자동차 안전시스템용 카메라 렌즈 개발 및 제조와 더불어 수출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지금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외형을 갖췄지만 2003년 회사 설립 당시에 위오는 조그만 오피스텔사무실에서 해외영업 1명, 경리 1명, 종업원 2명으로 시작한 단출한 회사였다. 혹자는 기술력등 내실이 중요하지 외형이 무슨 문제냐고 하겠지만 서동수 대표에게는 자동차의 본고장인 유럽 글로벌 Tier1과의 초기 프로젝트 진행 당시 상황이 아직도 또렷이 떠오른다.

서동수 대표는 "20여 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

고 도착한 고객사의 분야별 6명의 Auditor들이 당시 ㈜위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그저 믿고 맡겨준 고객 사가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교차한다"고 말한다.

신념과 열정으로 현재 위치에 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야 할 방향을 위하여 전 직원이 정진해 온 결과, 지금의 군포시 당정동에 1300m_2의 사옥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기술 • 연구인력 1명, 영업인력 2명, 사무인력 1명, 품질관리 및 생산기술인력 5명, 생산직 사원 22명이 근무하는 내실 있는 중소기업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2003년을 1차적인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3년 동안 지속적인 고객지원활동을 펼친 결과, 2005년 세계 최초로 CMOS기반 자동차용 카메라 렌즈의 양산시작과 함께 2009년까지 유럽 및 미주 등 Global Tier1 & Tier2 들로부터 많은 내방 및 프로젝트 진행 관련 RFQ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의 대명사인 Volvo 자동차에 세계최초로 CMOS기반 자동차 안전시스템용 카메라 렌즈 개발 및 공급을 시발로, 현재에는 미국 BIG 3, 유럽 및 중국 Geely 완성 자동차 등 첨단 지능형 자동차 안전시스템 Tier2 & Tier3 공급업체로서 세계 속의 강한 소기업으로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작지만 '세계 속의 강한 소기업'으로 빛 발산

유럽 및 미국과 같은 광학 선진국을 주요 수출국으로하여, 대만, 중국, 인도,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 글로벌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가 있는 국가 위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유럽, 싱가포르 및 대만 등 글로벌 정밀 의료기기 부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정밀 의료용 광학렌즈의 개발, 제조 및 수출도 병행하고 있다.

위오의 첨단 지능형 자동차 안전시스템용 카메라 렌즈 품목의 경우, 공식적인 직접 수출액은 2005년 3만달러에서 시작하여 2006년 44만달러, 2007년 87만달러, 2008년 140만달러에 이르는 등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두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2008년 대비, 수출액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2월 기준으로 110만달러를 달성했다. 국내시장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개발 및 공급 전문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위오의 주력제품 및 기술로는 지능형 차량용 카메라 렌즈를 Core item으로 하여, 정밀 의료용 광학계, 산업용 Machine Vision 광학계 등이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애슐리(ESSILOR)로부터 정밀 의료기기용 제품 공급 승인을 획득하여 향후 수년간 부가가치 있는 제품 공급은 물론, 추가적인 제품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첨단 자동차 안전시스템용 카메라 렌즈 제품으로는 미국의 BIG 3, 유럽 완성차 및 중국 Geely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양산 적용을 목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국내 완성 자동차에 적용될 지능형 자동차 카메라 렌즈 및 블랙박스용 카메라 렌즈 등 애프터 마켓을 위주로 한 제품 개발 및 공급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오에서 개발·제조·공급되는 렌즈가 적용되는 주요 핵심 시스템으로는 Side-view, Front-view, Rear-view, Corner-View, Computer-Vision, Night-Vision, LDWS, LKS, CWS, Black-box 및 Stop & Go 등이 있다.

위오에서는 향후 무인자동차 개발 및 첨단 입체 의료장비 개발에 있어서 요구되는 초소형, 초광각, Distortion free 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량 생산·저가격 공세 No!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을 향한 발걸음

위오는 SAFETY(안전), CONVIENCE(편리) & SMART(스마트) 등을 모토로 대량생산과 저가격 공

세가 아닌, 고객과 함께 생각하는 제품 개발 및 공급을 지향해온 결과, 지금의 내실과 주요 수출국이 말해주듯 작지만 강한 수출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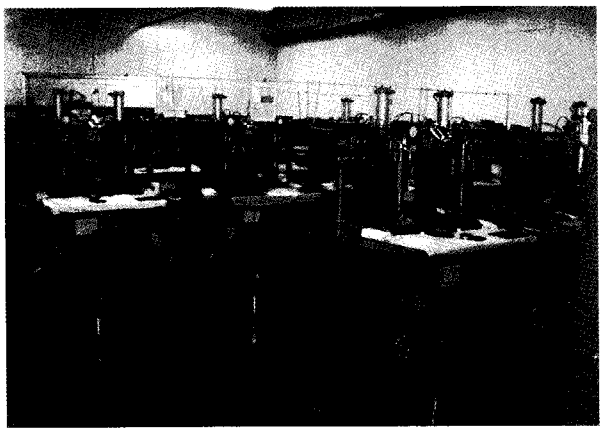
서동수 대표는 "강대국,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의 틈새에서 신념과 확신 없이는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직원들과 마음을 맞춰 중소기업의 강점인 신속한 계획 및 실행에 역점을 뒀다"며 "특히 '1인 1역'에서 벗어나 '1인 다역'과 적재 적소에 꼭 필요한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각자에게 대표이사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등 스스로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이 어우러져 위오는 2005년 광학렌즈 생산업체 중 국내최초로 ISO/TS 16949 시스템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세계적으로 안전한 자동차의 대명사인 유럽 Volvo 자동차의 Tier2 & Tier3 자격으로 세계 최초의 CMOS 기반 지능형 차량용 카메라에 적용되는 렌즈 양산 실적을 자랑한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지능형 차량용 카메라 렌즈 부품의 공식적인 수출액이 독일 75만달러, 미국 외 기타 유럽 64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광학산업의 선진국인 유럽 및 미국으로 역 수출할 정도의 기술, 마케팅, 품질 등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첨단 지능형 자동차 개발의 핵심 부품인 카메라 렌즈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Global Top 10 자동차 부품회사 중 5개 정도의 업체와 다수의 프로젝트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개 업체로부터 이미 2009년~2019년까지 3천 800만달러 상당의 프로젝트 진행계약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2010년 글로벌 완성차 고객의 최종 제품 적합성 테스트 및 양산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2008년 매출액 33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09년 12월 기준 매출액 30억을 달성했으며, 2010년을 제 2도약의 원년으로 준비하고 있다.

서동수 대표는 "유형, 무형으로 한국광학기기협회의 많은 지원과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 대하여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광학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실전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현장감을 익힌 후 더 넓은 분야로 진출한다면 더욱더 경쟁력 있는 산업역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하여, 협회 소속 기업들이 더욱 성장하여 소기업, 중소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생산현장

위오는 군포시 당정동에 1300m2의 사옥을 마련하고, 기술 · 연구인력 1명, 영업인력 2명, 사무인력 1명, 품질관리 및 생산기술인력 5명, 생산직 사원 22명이 근무하는 내실 있는 중소기업으로 발전해오고 있다.